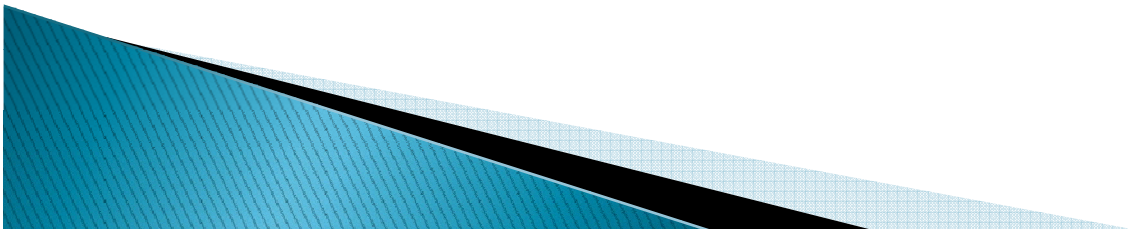


태안반도 야외 친교회 (5월20~21일)

- ❖ 야외 친교회 목적: “장자2020비전” 실천의 일환으로 장자교회 성도들 간
교제 및 단합도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함
- ❖ 참석자: 목사님, 사모님, 이흥수 장로님, 장성재집사, 정동식집사, 김관구집사, 김동춘집사,
김관철집사, 김원호 집사, 채창호집사, 김재춘집사, 최경숙집사
- ❖ 장소: 태안반도 김관구 집사 큰 형님이 운영하는 펜션
- ❖ 일정: 20일 밤 9시 교회 출발 ~ 12시 15분 도착
도착과 함께 집을 풀고 숙소배정 한 후 취침
- ❖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약 3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도착



태안반도 야외 친교회 산문 기행



아침에 6시도 채 안되어 대부분 기상
펜션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 저쪽에서
아침해가 눈이 부시도록 떠오르고 있다.
앞바다엔 작은 쪽배들이 등실등실 평온한
아침을 알리듯 우리에게 손짓한다.



정말 이쁜 펜션이었습
니다. 펜션에서 바다
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정말 전망이 좋은 곳 !!



펜션 앞에 지어진 정자에
앉아 있노라니 시원함이 이
루 말할 수 없었다.

아침에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떠보
니 장로님은 민들레를 한가마니 캐서
오셨다.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신단
다. 정말 부지런하신 분 !!



아침식사준비



여시 이분들이 우리의 아침을 책임지시는군요.
김동춘, 김관구, 김관철 집사님들의 음식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 !!



아침밥은 김동춘 집사.
된장국은 김관구 집사.
정말 맛있는 아침식사였
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펜션 앞
바닷가에서
....



김관철 집사님 그리고 여자분들은 점심을 위한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가
고 나머지 우리 남전도회원들은 근처 해수욕장 및 바닷가 구경을 다녀
오기로 함

바닷가 구경



구름포해수욕장 !! 경치가 너무 좋아 모두들 행복한 웃음들입니다. 옛날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돌을 주어 물 팔매질들을 하면서 옛 어린시절로 잠시 돌아 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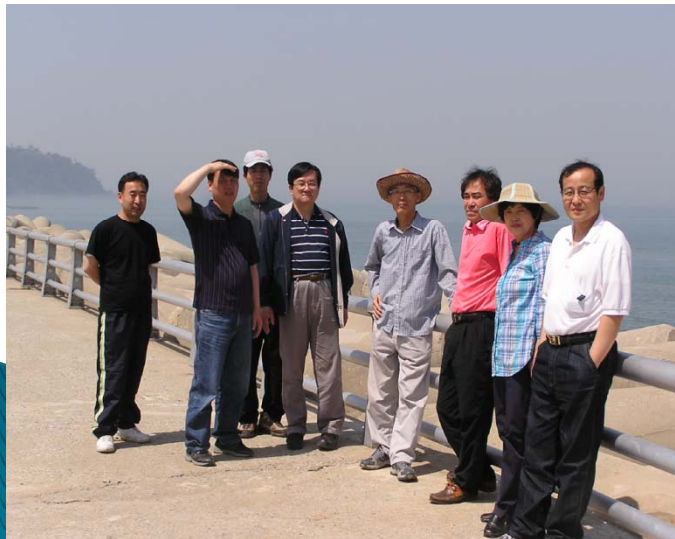
멋진 우리 목사님과 꿈 많고 감성적인 바닷가 소녀 사모님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특히 바닷가에서 즐기는 시간들에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바닷가 구경



구름포해수욕장을 나와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 그리고 십리포 해수욕장을 거쳐 신도리 해수욕장에 도착 !!!

이곳은 펜션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닷가 모래밭이 정말 멋지고 얇은 모래밭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니다. 또한 옆에는 생태습지 사구가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어린아이들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항에 이르러 제방을 걸어 산책하는 길에 ...

모항은 정말 아늑하고 으마 품속 같이 마음 편함이 있는 그런 항구였다. 제방 쪽을 따라 가는 길에 오른쪽 바위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여지없이 낚시꾼들이 집을 치고 낚시에 여념이 없었다. 제방 쪽 끝에는 하얀 등대가 높이 서 있었다.

점심식사 준비



점심시간에는 광어 우럭회 그리고 소라와 조개
구이를 먹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3.5 kg이
넘는 광어를 잡고 멋진 포즈를 ...



문제는 회를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동식집사, 장로님 그리고 장성재집사께서
붙어 맛있는 회를 준비하고 계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김관구 집사님이 소라와 조개구이
그리고 삼겹살구이를 준비하고 계신다.
지글지글 !! 소라구이는 정말 일품이었다.



점심식사



드디어 소라 조개구이 광어 오력회 그리고 삼겹살이 준비가 되어서 매운탕까지 준비가 되어 상이 휘어질것 같다. 모두 침이 꿀꺽꿀꺽 !! 드디어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정말 바쁘게 행복한 점심식사시간을... 그런데 모두가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리에 앉아 맛난 식사를 계속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여 집사님들....



오후 기행

오후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했다. 글로써 풀어보리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담당은 김관철집사, 김원호 집사가 담당.

그리고 커피 한 잔들을 하고 난 다음, 호미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펜션 앞 바닷가에 갯벌로 나갔다. 모두들 정신없이 호미로 갯벌을 파서 조개를 줍는다.

김동춘집사는 조개가 없다고 야단이다. 알고 보니 조개가 없는 게 아니라 조개를 찾지 못해서

김 집사님은 조개가 하얗게 눈에 금방 띄울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삶의 현장교육이 중요한 거랍니다. 하하하!!!

조개가 조금 작긴 했지만 조개를 많이들 캐셨습니다.

시간이 되어 철수를 하고 나오는 길에 정말 이게 웬 황제입니까?

바닷물이 빠지면서 비쳐 빠져나가지 못한 큰 오륙 한 마리가 물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까?

김원호 집사는 처음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륙이 옆으로 누워 아가미를 흔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자연산 오륙이지요. 크기도 크고 힘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연산 오륙을 맛 보려고 했는데 회를 뜰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결국엔 회를 먹지도 못하고 매운탕으로

이렇게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에 서해대교 휴게소에서 우리는 또 다시 돛 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에 떡에 과일에

정말 1박2일 동안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전 배가 깨지지 않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하여 서울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 김관구 집사님이 저녁을 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어탕을 먹으러 간답니다. 정말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또 먹는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추어탕이기에 또 함께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교회도착 저녁 7시 4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분들과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여행을 함께 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은 정말 친구와 같이 오래도록 함께 우정과 사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 짧은 1박 2일의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으로 웃으며 얘기하며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운데 믿는 성도들간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세우는

일은 정말 보람되고 뜻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